

LG화학, 매출 32% 늘어 “사상최대”

PVC 수급 안정에 ABS 전방사업 호조로 ... 석유화학부문 3조3086억원

LG화학이 석유화학부문 시황호조와 LCD(Liquid Crystal Display)용 편광판 등 정보전자소재 성장에 힘입어 1/4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

LG화학은 4월2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1/4분기에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매출 4조4231억원, 영업이익 6524억원, 순이익 5177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 32.0%, 영업이익 34.6%, 순이익 73.0%가 각각 증가해 매출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2009년 3/4분기 6969억원에 이어 2번째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LG화학은 석유화학부문에서 폴리올레핀 가격 강세, PVC(Polyvinyl Chloride)의 안정적 수급,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의 전방사업 호조와 중국수출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높은 영업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 정보전자소재 부문은 중국, 유럽의 TV판매 증가 등에 따른 LCD용 편광판 판매 호조, 2차전지 핵심 수요처인 노키아와 HP 등의 점유율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석유화학은 매출 3조3086억원, 영업이익 4901억원으로 각각 28.2%, 29.0% 증가했으며, 정보전자소재는 매출 1조1594억원, 영업이익 1681억원으로 각각 47.6%, 52.3% 늘었다.

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은 “2/4분기에도 석유화학은 계절적 성수기 진입,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호조, 유가상승 등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강세 등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며, 정보전자소재도 IT 수요 강세 등으로 영업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20>